

내 작품 명제는 모두 “가까이…더 가까이…”이다. 말 그대로 가까이 다가와서 보아 달라는 뜻이다.

언뜻 보면 내 작품은 단순한 “땡땡이” 무늬이거나 미니멀한 평면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가는 선, 글씨, 얼룩 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처음 시각을 미끄러뜨린다. 이른바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권력”에 흠집내기이다. 이러한 나의 의도는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소산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패러디와 아이러니가 비판적 모더니즘의 페미니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나의 작업은 모더니즘과 탈모더니즘의 경계 위에 애매하게 아련히 서있다.

위의 인용문은 2001년 11월 웅 갤러리에서 가졌던 관화 개인전 팜플릿에 내가 쓴 글 중의 일부이다. 위의 글이 너무 개념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좀 풀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이란 말에서의 **모더니즘**이란 단어와 “비판적 모더니즘”이란 말에서의 **모더니즘**은 그 함의의 범위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모더니즘은 그것이 영토화, 권력화(화폐권력, 문화권력)되면서 비판성을 상실하게된 모더니즘을 뜻하는 것이다. 프랭크 스텔라의 줄무늬 회화나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등은 이미 미술사의 영토에 엄연히 자리잡고 서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후자의 모더니즘은 그 앞에 비판적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모더니즘이 권력화 되지아니하고 비판성을 유지하고 있던 모더니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방가르드 “정신”과 접속이된 모더니즘인 것이다.

나는 나의 작업을 후자의 모더니즘 맥락에 위치 시키고자 하면서 그것을 또 패러디하며 해체시키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페미니즘적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남근주의적으로 모더니즘을 도끼로 깨부수듯 부수는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권위있는 도상에 가는 구멍을 낸다는 뜻이다.

누가 무어라해도 나는 금세기 문화의 화두는 페미니즘이라 생각한다. 저간의 문화 예술이 새로움, 진보를 달려왔다면 금세기는 느낌과 휴식, 뒤돌아보기의 미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가 되어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학은 페미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새롭지않다. 충격적이지 않다. 모더니즘적 도상과 그것의 흠집을 통한 탈모던적 해체 사이에서 아른거리고 있을 뿐이다.

2002. 4. 김용익